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이은경 K요들협회장

“밝은 목소리·긍정 언어 따라 삶의 결 달라진다”

‘요들처럼 살아라’ 주제 요들 인문학 소통법 등 제시
발성·리듬 체험…9월3일 김광호 원장 2학기 첫 강좌

2일 오후 전남광주특별시 서구 치평동 브리브 광주 바이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에서 이은경 K요들협회장이 ‘요들처럼 살아라’를 주제로 강의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노래는 말이고, 말은 노래입니다. 어떤 목소리와 언어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이은경 K요들협회 회장은 2일 전남광주특별시 서구 치평동 브리브 광주 바이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에서 말과 표정, 호흡이 관계와 삶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요들처럼 살아라’라는 주제 강연에서 ‘요들 인문학’을 바탕으로 알프스 민요로 알려진 요들을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로 풀어냈다.

K요들협 회장과 이은경요들아카데미 원장, 예원예술대 교수로 활동해온 이 회장은 MBC ‘뽀뽀뽀’의 요들언니로 대중에 알려졌다.

어린이 요들합창단 지휘와 공연, 방송,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요들을 친숙하게 알리는 한편, 아리랑 선율에 요들 창법을 접목한 ‘아리랑 요들’을 비롯해 한국적 정서를 접목한 K요들의 가능성을 넓혀왔다.

이 회장은 강연 내내 ‘맛있게, 멋있게, 사랑스럽게’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언어 습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수단을 넘어 관계의 온도와 분위기를 만드는 힘이라는 것이다. 특히 긍정적인 말과 표정, 밝은 목소리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소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말투와 표정, 목소리를 조금만 바꿔도 삶의 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요들은 소리를 크게 내는 기술만을 뜻하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소리를 꺼내고, 다른 사람의 소리와 어우러지는 음악”이라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소리만 내세우기보다 서로의 호흡과 박자를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연에서는 우리말의 모음과 소리의 울림을 활용한 발성 연습도 이어졌다. 원우들은 ‘에’, ‘이’, ‘오’, ‘우’ 등의 발음을 반복하며 호흡을 조절하고 소리를 내는 방식에 대해 배웠다. 원우들은 이 회장의 지도를 따라 음을 오르내리고 요들 특유의 리듬을 익히며 강연에 적극 참여했다.

한편,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는 이날 강의를 끝으로 1학기 과정을 마무리하고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2학기 과정은 오는 9월 3일 김광호 콤비마케팅연구소 원장의 강연으로 시작한다.

이어 9월17일 김누리 중앙대 교수, 10월8일 원우기업 탐방, 10월22일 문달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의 강연이 진행된다. 11월 7일 문화관광탐방, 11월 11~15일 해외 연수, 11월 19일 김계환 전남대 의대교수 강연과 12월 3일 수료식으로 올해 과정을 마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동신대-건양대, 미래 에너지ICT 융합 분야 협력

산·학·연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
지역 정주형 협력 생태계 구축

동신대학교와 건양대학교는 최근 건양대 글로컬캠퍼스에서 ‘산·학·연 현장실무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동신대학교

동신대학교 앵커사업단 시그니처프로젝트센터(센터장 이동휘)와 건양대학교 글로컬대학30 DY성공추진센터(센터장 박은희)가 미래 에너지ICT 산업을 이끌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초광역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양 기관은 최근 건양대 글로컬캠퍼스에서 ‘산·학·연 현장실무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동 교육과 산학협력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학생·교수·연구인력 교류, 참여기업 연계 취·창업 지원, 대학·지자체·기업 간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교육·정주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동 세미나와 학술행사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또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산학 공동연구, 지역혁신 프로젝트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협약식에서는 산업체 전문가 특강과 현장실습, 취·창업 연계 교육, 공동 프로젝트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과 실무역량을 높인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실질적인 산학협력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동휘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ICT와 AI를 융합한 현장 중심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산업체와 공동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조숙경 켄텍 교수, 과학기술소통학회 회장 선임

국내 첫 과학커뮤니케이션 전문학회…11월 아시아 창립대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조숙경 에너지공학부 교수(사진)가 국내 최초 과학커뮤니케이션 전문학회인 한국과학기술문화소통학회 초대 회장에 선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학회 출범은 인공지능(AI)과 에너지, 기후위기 등 첨단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과학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소통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5월 공식 출범한 한국과학기술문화소통학회(KCST)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소통을 연구하고 현장 실천 및 정책 연계를 추진하는 전문 학술단체다. 학회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학술·정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초대 회장을 맡은 조숙경 교수는 아시아인 최초로 PCST Network 회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외 과학소통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KCST는 앞으로 과학 콘텐츠의 정확성과 대중성을 함께 높이는 ‘팩트(Fact)·임팩트(Impact)’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AI·에너지·기후위기·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현안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 산업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연구자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과학소통 생태계 조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국제 협력도 본격화한다. 학회는 오는 11월 일본, 중국,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2031년 PCST 세계대회 유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숙경 교수는 “AI 시대에는 뛰어난 기술만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과학과 사회를 연결하는 신뢰와 소통이 혁신의 핵심 경쟁력이 된다”며 “KCST가 과학기술인과 과학커뮤니케이터, 정책 결정자, 시민을 잇는 대표 학술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시의사회는 최근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진도 7.5 규모의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 2000만원을 마련하고 2일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시의사회, 베네수엘라 이재민 구호 성금 전달

광주시의사회는 최근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진도 7.5 규모의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 2000만원을 마련하고 2일 전달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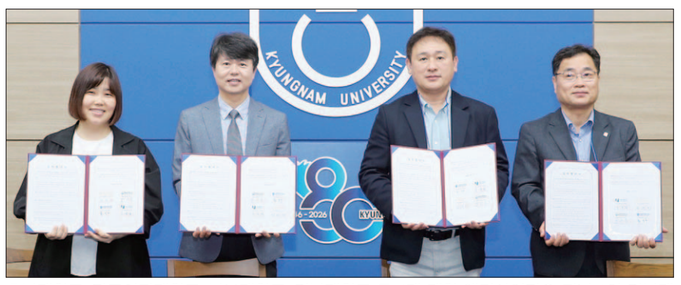
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의 긴급 의료구호와 생필품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재민을 돕고자 하는 회원들의 마음이 담겼다. 광주전남정형외과의사회에서도 성금 모금에 5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그동안 지진 피해, 댐 붕괴, 전쟁, 코로나19 발생지역 등을 찾아 헌신적 봉사활동을 펼친 서정성 광주시의사회 부회장 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현지를 찾아 의료구호 활동과 함께 직접 전할 예정이다.

최정섭 광주시의사회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안타까운 소식에 광주시의사회 회원 모두가 깊은 슬픔을 함께 했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피해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호남대학교·광주여자대학교·남부대학교·경남대학교 등 4개 대학 앵커사업단은 지난 1일 경남대 창조관 평화홀에서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호남대학교

호남대·광주여대·남부대·경남대

초광역 지역혁신 앵커사업 협력체계 마련

호남대학교·광주여자대학교·남부대학교·경남대학교 등 4개 대학 앵커사업단은 지난 1일 경남대 창조관 평화홀에서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호남권과 동남권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해 권역을 넘어서는 지역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4개 대학은 △초광역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산·학·연 연계 협력체계 구축 △리빙랩(Living Lab) 기반 지역문제 해결 △우수 교육 콘텐츠와 사업 성과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각 대학이 보유한 특성화 분야와 지역사회 협력 경험을 공유하고, 권역 간 우수사례를 확산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박인혜 호남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한국 주니어 골프대표팀 이끌고 국제무대 성과

박인혜 호남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사진)가 한국 주니어 골프대표팀 단장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해 남자 개인전 우승과 혼성 단체전 우승 등 값진 성과를 이끌었다.

박 교수는 최근 스리랑카 콜롬보 로열 콜롬보 골프클럽(Royal Colombo Golf Club)에서 열린 ‘2026 APGC 주니어골프대회’에서 한국골프대표팀 단장을 맡아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관리, 현장 지휘를 담당했다.

이번 대회에는 17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된 16개국 대표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한국은 남자 개인전 우승과 남녀 혼성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으며, 여자 개인전 준우승과 여자 단체전 준우승, 남자 단체전 3위 등 고른 성과를 거두며 국제 경쟁력을 입증했다.

박 교수는 선수 시절 미국의 주요 골프 아카데미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고, 국가대표와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로 활동하며 다양한 국제대회를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들의 경기력을 분석하고 대표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지도력을 발휘했다.

또 박 교수는 지난 2023년부터 대한골프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KLPGA 최연소 교육분과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 골프 교육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 훈련,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 마련에도 적극 참여하며 한국 골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